

브라질, 바이오디젤 생산 세계2위

2008년 디젤 수입대체 효과 10억달러 ... 6월부터 B3 사용 의무화

브라질이 바이오디젤 사용 확대를 통해 2008년 10억달러의 디젤 수입대체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브라질 정부 산하 바이오디젤 생산·소비 프로그램(PNPB)은 “6월1일부터 바이오디젤의 혼합비율을 3%로 높이기로 한 방침에 따라 2008년 디젤 수입량이 줄어들어 6억달러의 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브라질 정부는 앞서 전국 3만5000개 주유소를 대상으로 기존 디젤연료에 대한 바이오 디젤 혼합비율을 2%에서 3%로 높인 <B3> 사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브라질은 2008년 초부터 바이오디젤이 2% 혼합된 B2 판매를 통해 디젤 수입 의존도를 7%에서 4%로 낮추면서 4억1000만달러 정도를 절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 최대의 에탄올(Ethanol) 생산·수출국인 브라질은 바이오디젤 사용 확대 조치를 통해 바이오 에너지 분야에서 확실하게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브라질의 바이오디젤 소비량은 2007년 4억리터에 이어 2008년에는 10억리터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브라질의 49개 바이오디젤 생산시설의 생산능력은 25억리터로 추산되고 있어 당분간 바이오디젤 소비량이 늘더라도 수급에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바이오디젤 생산 확대를 통해 6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농촌 지역에 대한 고용 효과도 높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바이오디젤 사용이 늘어나면서 브라질은 2008년 이태리 및 프랑스를 제치고 독일에 이어 세계 2위의 바이오디젤 생산국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브라질산 바이오디젤의 60-70%는 콩기름, 나머지는 동물성 기름과 피마자, 해바라기 등에서 생산되고 있다. 특히, ha당 생산량이 콩보다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피마자와 해바라기 등 식물의 재배 규모를 크게 늘릴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8/06/20>